

# 200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련회

- 2003년 평가와 2004년 상반기 전망 -

일시 : 2004년 1월 17-18일

장소 : 민주노총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ILSH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32-2 3층 (우 151-863)

전화 02)2679-0633 / 메일 laborr@jinbo.net / www.kilsh.or.kr

1. 200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련회 일정 / 2
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가와 과제 / 3
3. 연구기획위원회 2003년 평가 · 2004 사업계획 / 4
4. 교육위원회 2003년 평가 · 2004 사업계획 / 5
5. 편집위원회 2003년 평가 · 2004 사업계획 / 10
6. 광고 / 16

## 200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련회 일정

---

⋮

17일 20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가·과제 발제  
연구기획위원회 평가·사업계획 발제 및 토론  
교육위원회 평가·사업계획 발제 및 토론  
편집위원회 평가·사업계획 발제 및 토론

23시

뒷풀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가와 과제

## 1. 평가

- 연구소를 운동으로서 조직하려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당면의 계급성, 현장성, 전문성은 연구소를 조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던가? 현재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물론 연구소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우리의 환경과 역량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물음과 “그렇다”라는 대답을 얼마나 현실화했는가 평가의 지점이 될 것이다.

- 2002년 하순에 조직된 “근골격계 직업병 연구단”(연구단)은 우리의 전신이다. 한편 민중의료연합의 노동자건강사업단 역시 우리의 전신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전신은 노동보건연대회의이다. 이 세 가지 노력과 흐름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동시에 이것에 합 이상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노동자건강사업단의 주요 역량은 연구자였다. 99년 이후 헌신과 노력은 크고 작은 연구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현장활동 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동보건연대회의의 99년 이후 현장활동가 위주의 노동보건운동을 펼치고자 조직되어 2003년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주동력은 지역의 노동보건운동 단체였다. 전국적인 논의는 가능했으나 집단적 실행과 집행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안정적 연구 등의 축적은 가능하지 못했다. 연구단은 이 가운데 지점에 놓여 있었으며, 연구소로 조직되는 길이었다. 그러나 “근골격계”는 현재의 쟁점이지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니므로 다시금 조직되어야 했다. 99년 이상관 투쟁의 동력과 과제를 고스란히 보존 확대하려는 노동보건운동의 흐름은 현재 연구소를 만들었던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려왔으며, 어디에 서있나? 민의련 노건단, 연구단, 연구소를 경과 하면서 우리의 큰 성과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노동강도의 문제를 만만치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기간의 우리의 노력만은 아니지만, 노동강도의 문제를 여기까지 진전시키는데 있어, 분명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은 현장활동가의 결합을 이루었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있다. 기간에 우리가 갖추려는 조직의 형태와 모습은 연구자와 현장활동가가 결합으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흡의 빠르기는 서로가 다르다. 성원간의 소속감은 편차를 이루고 있고, 고민의 무게 역시 다르다. 이것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나 후속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걱정할 정도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노동안전보건 전체를 연구에서나 활동에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연구단이 아닌 이상 골병과 스트레스만이 우리의 과제는 아니다. 물론 이것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현장활동만이 강조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생존 방식이 그랬듯이 새로운 화두와 대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걱정할 정도가 될 것이다.

- 계급성과 현장성 그리고 전문성은 어디서 확인 받을 것인가? 답은 현장이다. 연구소가 가장 3가지 지향을 가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막 발걸음을 떼고 있는 연구소는 전신의 성과를 가지고 있을 뿐, 확인하기에는 이르고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것의 확인의 한편으로 우리의 노력이지만 한편으로 전국전선의 설

정의 항배에도 놓여있다.

-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연구소에 익숙하지 못하다. 서로의 활동 경험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무엇이 연구소로서 잘하는 것이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늘어난 것 일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성에 차지 못할 수도 있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아직 우리는 잡지를 내고,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지만, 투쟁을 보고 받을 뿐,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에 진전이 3가지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 과제

04년은 본격적인 연구소 활동의 틀을 잡아나가기야 할 때이다. 활동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이 필요하다.

첫째, 활동거점의 확보 및 확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연구조사, 교육 및 조직의 대상과 거점이 확보 및 확대되어야만 연구소 활동을 진전시킬 수 있다. 현재, 직접적으로 서울·경기, 경남권과 간접적으로 대전·충청권, 전남권이 있다. 가장 취약한 지점이 서울·경기권이다. 최소한 이 권역에서는 사업장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연구과제의 다양화, 현장노동자의 연구과정의 참여 확대이다.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과제는 조사연구, 원인규명, 원인제거, 관리 뿐 아니라 법, 제도 환경 등에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소의 태도 및 견해 그리고 대안 등은 또 하나 준비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대 자본 투쟁은 매우 다방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연구과정에서 노동자의 더욱 더 확장된 참여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의 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일상활동의 안정화이다. 우선 잡지의 안정적 발간, 그 다음 다양한 소모임의 운영, 마지막으로 재정의 안정화이다. 선전선동의 도구와 조직화의 일환인 잡지와 역량강화, 새로운 동력 형성으로서의 교육 및 소모임 운영은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재정의 안정화는 기간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을 일소하고 규모에 따른 운영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투쟁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의 성과와 고민을 투쟁으로 표출해야 한다. 조직의 안정과 동시에 이점은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막 시작했지만 우리의 운동은 막 시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물론 유/불리는 이미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내딛은 걸음이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간혀있어서는 곤란하다. 04년은 조직의 틀을 형성하고 무엇이 연구소 활동인지 정립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한국 노동운동과 해방운동에 기여하고 참여할 최소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04년 우리의 과제이다.

# 2003년 연구기획위원회 평가

2003년 연구기획위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반기 두원정공, 풀무원, 삼호중공업, 도시철도, 철도, 현대자동차 민투위, 쌍용자동차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고 투쟁을 조직하였다. 다양한 현장의 상황과 주체의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수준의 성과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여전히 진행중인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2004년의 난관과 기회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 1. 조직평가

연구단 시기의 초기 모임에는 연기위 성원들의 경우 전문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후 실제적인 투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전술과 투쟁기획에 대한 역할을 요구받으면서 일정정도 그러한 한계는 극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기위의 조직면을 평가해 볼 때 연기위의 소위 '전문가들이' '활동가'로 재조직되기 위한 과정의 출발선상에서 있게 된 것은 2003년 연기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산업의학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인간공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의 인력을 충원하고 현장 활동가들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함으로 인한 연기위의 조직활동과 정치적 기획능력의 부족함이라 할 수 있다.

연기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 체계가 안정화 되면서 연기위 안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원 전체의 회의 참석율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연구소의 활동과 우리의 운동과 관련된 고민 및 정치 기획에 대한 내용적 소통은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서울연구기획위원모임과 같은 실행단위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적으로 연기위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었으나 실제로 모든 성원들이 부하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연기위를 비롯한 연구소 회원의 재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2. 투쟁평가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확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투쟁의 쟁점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집단요양투쟁으로 대표되던 현장의 투쟁이 요양 이후의 복귀와 재할 등에 대한 것으로 쟁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업장으로 본격적으로 인입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당위와 원칙만으로는 운동의 확산이 쉽지 않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과 관련된 각 단계의 기본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기위 성원의 내용 생산과 이에 대한 전술과 관련하여 제안되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의 선도성은 유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부족은 이것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산재보험 문제에서부터 돌출되는 요양 및 복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못한 우리의 한계가 이러한 주도권 상실의 과정에 일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실제 현장 투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사업을 진행했던 단위 중 실물적인 투쟁의 성과 여부를 떠나서 조직을 남겼는가 가장 큰 평가의 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장의 실행단위를 만들고 운영을 해 나갈 주체들을 조직하는 한편 실제 현장활동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 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핵심임을 상기해 볼 때 그 틀을 구성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현장에서 일상적인 주체를 어떻게 조직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 운동의 부족함과 전술 및 과제에 대한 정치적인 많은 논란들은 근골격계 투쟁에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할 현장실천의 문제를 질기게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우리는 이러한 투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연맹이나 산별의 공식적인 라인의 부재로 인한 우리 운동의 전술과 성과를 전파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 운동의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역사성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후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과 현장통제력 쟁취에 대한 모범을 만들고 이를 의식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고려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기위원들은 연구소 전체의 흐름 및 노동운동 전체의 흐름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체 노동운동 안에서의 노동보건운동의 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역량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구체적인 투쟁과정에서 각 현장의 상황에 따른 투쟁 전술을 고민하여 제출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 하였으며 이는 초기 연기위의 전문주의적 접근방식에서 기인한 자기 역할 규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 물론 이러한 전문주의적 접근방식이란 것이 운동에 있어서의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아닌 학술적인 의미의 전문성이다. 그러나 이의 극복에 대한 고민이 2003년 투쟁과정을 겪으며 진행이 되었다. 현장에서 투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근골격계 투쟁을 조사하고 현장을 만나기는 동안 연기위에 요구된 것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정치적 기획과 대안마련이었으며 이러한 현장에서의 요구는 연기위 성원들의 학술적 전문주의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따라서 기간의 전체 노동운동과의 조응 속에서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전술 기획 및 투쟁 기획은 여전히 연기위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돌출되었다.

### 3. 연구평가

2003년은 연구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인 그룹 안에서 일정 정도의 주도권을 획득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또한 각 사업장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연구 시도들은 우리의 연구성과들이 현장에서 투쟁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나왔다.

한편 연구의 시작 단계부터 자본과 노동의 관계와 각 사업장의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의 전체 연구소 성원과의 소통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단사별 대안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연구에 있어 핵심 키워드인 현장참여연구에 대한 우리자신의 실천적 방안이 부족한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겨져 있다.

특히 상반기 이후 실제적인 현장조사사업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 운동의 확산이 한계 지어지는 결과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연구기획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상정함에 있어 조사자와 이후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 정도로 상정한 것은 아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적극적으로 실제로 우리 운동의 확산을 위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현장과의 실제적인 조사를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주어진 연구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업장을 조직하고 실제 이 투쟁의 사회적 의의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지만, 연기위의 운영과 조직을 강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면이기도 하다.

한편 학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받아 안지 못하면서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거의 투쟁의 방식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의 대중화 방식과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고리를 찾아내는 것은 여전히 연기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실무에 쫓겨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은 충분한 반성의 지점이라고 본다. 특히 이에 대한 고려들은 일부 회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전체적 조망속에서 예측되는 문제를 사전에 공부하는 것은 아직 우리 수준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총평

2003년 연기위는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펼쳤다. 조사연구사업과 각종 선전사업과 여론화 작업들을 수행해 왔다. 또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의 보편화와 함께 수반된 합의주의와 조합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쟁점의 형성과 운동세력 내부의 전선형성에도 기여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의 근골격계 투쟁은 집단요양이라는 전술을 중간단계의 과정으로 격하(?)시킬 정도로 사회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의 문제를 '산안'사업이 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작업장 통제력 확보라는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연기위 내부적으로는 운영의 안정화와 함께 전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와 연구기획위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기였다. 특히 2003년 하반기는 현장에서 의뢰되는 조사사업만을 시행하는 연구대행체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주되게 고민되었으며 이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어 운영체계의 안정과 조직 내·외적 사업의 기획으로 실물화 되었다. 한편 연기위의 연구성과를 학계에도 널리 선전함으로써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실제 주도권을 선점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전문주의와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의 적절한 투쟁을 기획하는 능력과 각각의 구체적 투쟁과정에서의 전술적 개입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조사사업이후의 현장의 투쟁 시기 전체적인 전술과 조직된 실행위의 활동에서 여전히 배제될 가능성을 충분히 노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현장 사업이후의 후속작업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2004년 주요한 과제로 떠안아야 할 지점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우리의 연구기획활동은 투쟁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활동역량은 2004년 진일보한 것이 되어야 한다.

## 2004년 연구기획위원회 사업계획

2004년은 연구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의 금속을 제외한 다른 연맹단위로의 확산과 사회적 이슈파이팅을 지속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 움직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총의 대응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윤'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이라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강구에 게거품을 문다. 경총산하에 전략 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요구와 행동은 신자유주의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에 걸맞지 않는 요구이며, 집단요양투쟁 등과 같은 투쟁만을 일삼아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호들갑이다. 총지본은 소위 '유연화 전략'과 '구조조정'이 야기한 노동자본간 '이윤'과 '삶자체'를 둘러싼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2004년 연구기획위의 핵심 목표는 다양화 되고 치밀해지는 자본의 대응을 무산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투쟁 및 전술 기획을 위한 연기위의 조직 확대 및 현 연기위원의 '활동가로서의 재조직화'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투쟁의 전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운동의 확산을 위한 지역적 벨트 구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의 확산과 대전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중심의 근골관리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 1. 조직과제

## (1) 현장 활동가 조직

- ① 대중적인 공개 강좌 운영 ; 상반기 중 교대제 학습 모임 운영
- ② 매년 초 투쟁 기획 토론회를 통한 노동운동 내 연구소의 입지 확장
  - 매년 2월 개최를 목표로 하여 진행
  - 그 해의 투쟁 과제들이 예리하게 토론될 수 있는 자리로 상정
  - 신입산안간부 및 노조 집행부, 현장활동가 중심의 전국적 전술 토론
- ③ 현장 활동가의 조직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

## (2) 연구기획위원의 다양화

- 학술 포럼을 통한 진보적 지식인들의 소통 공간 확보
- 다양한 분야의 진보적 지식인들과의 연결고리 마련 ; 교육, 강좌 등.

## (3) 연구기획위원회 운영 안착화

- 체계 정리 및 구성원 역할 배분
- 연가위원간의 활발한 소통
- 연구기획위원회 회의 및 서울 연구기획원 모임 결과 공유 및 일상 업무 진행사항 공유
- 연구기획위원회 내 필요한 교육 및 토론, 정세토론 등 배치

# 2. 투쟁과제

## (1) 근골후속작업 정리

- 근골격계 관리프로그램 완성 및 사회화
- 현재 투쟁이 진행중인 단위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

## (2) 새로운 투쟁과제의 제안

- 직무스트레스 책자 사업의 진행
-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술 개발

## (3) 운동의 확장

- 투쟁 가능한 사업장의 적극적 조직

- 비금속·비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교육·선전 배치를 통한 운동의 확산
- 자본의 다양한 대응에 대한 다양한 전술 마련 및 사례 창출

① 의왕 로템 조사사업

- 2003년 평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범 창출
- 지역적 투쟁의 연결고리 마련
- 고령화되는 현장에 대한 조직력 배가

② 뉴코아

- 비금속·비제조업으로의 운동 확산
- 새로운 전술 개발

### 3. 연구과제

(1) 지속적인 학습 운영

- 상반기 ; 노동-휴식시간의 설정문제

(2) 연구성과의 사회화

- 여름경 학습의 성과와 현장연구원들과의 토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인 포럼 진행
- 학회내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논문 작업
- 지속적인 매체 집필 작업

(3) 기획연구

① 복귀실태조사

- 장기적인 연구과제로서 어떤 사업장에도 긴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 정비
- 복귀실태조사 팀을 중심으로 연기위의 독자적 사업으로 가져감

② 직업성 피부질환 관련

- 가장 기본적인 직업병에 대한 접근
- 연구소 안의 정책적 가능성 시험
- 감시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진행

### 4. 2004년 상반기 시기별 활동계획

## (1) 일상적 활동

- 월 1회 전국연구기획위원회/월 2회 서울연구기획위원모임 운영의 안정화
- 일상적인 소통 ; 회의결과 및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온라인 소통, 회원 1일 1회 홈페이지 및

### CUG 접속 실천

- 기획연구 진행
- 교대제 학습
- 노동-휴식시간 설정 학습

## (2) 1월

- 세계사회포럼 참가
- 직무스트레스 책자 작성
- 교대제 학습모임 운영 계획 수립 ; 교육위의 소모임과 연계 운영방안 마련 및 연맹단위로의 제안 추진
- 노동-휴식시간 설정 학습 시작
- 노동자중심의 근골관리프로그램 완성 및 사회화
- 연기위 자료 정리 및 홈페이지 정리

## (3) 2월

- 신년 투쟁기획토론회 실시
- 직무스트레스 책자 발간
- 교대제 학습모임 운영 실시
- 기획연구 시행방안 마련
- 노사 합동프로그램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사회화
- 로템 사업과 관련한 투쟁전술 및 내부목표 토론

## (4) 3월

- 서울연구소 신입회원 기본교육 시행
- 연기위 정세토론 기획 (총선관련 내용)
- 평택 한라공조 조직

## (5) 4월

- 의왕 로템 조사사업 진행

## (6) 5월

- 의왕 로템 조사사업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7) 6월

- 의왕 로템 보고서 작성
- 뉴코아 조직

## (8) 7월

- 교대제 및 노동-휴식시간 설정에 관한 학술 포럼

# 2003년 교육위원회 평가

연구소 창립과 더불어 교육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다. 아직 체계와 운영이 안정화되지 못하였고, 활동 내용이 미약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동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운영 및 체계에 대한 평가

교육위원회는 2003년 후반기에, 기초성원구성과 운영의 안정화를 단기적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월 1회 정기 모임을 운영계획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장, 교육실장, 교육부장을 포함하여 10여명의 교육위원을 선임하였고, 월 1회의 정기 모임을 4차례 진행하였다.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기초성원구성과 운영의 안정화라는 단기적 운영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참석자 7명)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의 경우 참석자가 4명에 불과하였다.(교육실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는 주로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 교육위원들이 긴급하게 발생한 현장 상황(2003년의 경우 특히 열사 정국)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회의 참석이 교육위원회 운영의 안정화를 정확히 반영해주는 지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연구소 전체의 활동과 운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한 달에 한번 각 위원회 회의의 참석은 연구소 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각 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의 활동을 계획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결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현장 회

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공간으로 매시기 연구소 전체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 위원들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 위원들이 해당현장에서 왕성한 활동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결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교육위원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고서 교육위원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주로 교육위원회 및 교육실 회의 결과, 연구소 주요 행사 및 사무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실의 주요 사업 진행상황 및 사무처의 주요 논의사항을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최근에 새롭게 문을 연 연구소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풍부히 하고, 교육위원 개개인이 최소 하나 이상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교육위원이 보다 책임감 있게 연구소 활동에 결합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각 교육위원에게 연구소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는 취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의 활동을 더욱 풍부히 하고, 각 교육위원들이 실제 소속 현장의 문제를 연구소 내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보다 궁극적인 취지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실내에 상근 역량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현재 교육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과 관련된 실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위원회의 운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을 매개로 접촉했던 현장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투쟁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투쟁을 기획하고, 그러한 투쟁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노동보건운동역량을 확대·강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위원회 혹은 연구소 본연의 활동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근 역량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위원회의 체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연구소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① 연구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② 연구소 교육활동 실무 진행 점검 및 평가로, 교육실의 역할을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 집행'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의 활동과 교육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운영이 안정화되지 못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활동과 교육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운영 및 체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비단 교육위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위원회, 중국적으로는 연구소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의 활동의 경험상 이를 단기간에 타개할 만한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결국 조직활동의 기풍을 만드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지금시기 연구소의 운영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가 이후 연구소 활동의 성패를 가름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 활동에 대한 평가

교육위원회는 연구소 창립당시 계획했던 당면 주요과제의 일부를 수행하였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 주요과제로 제시되었던 기획강좌는 대전, 충북지역의 신임 노동안전보건현장 활동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11월 20일 진행하였다. 대체적으로 애초의 기획의도에 부합하고 적절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특히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했던 점, 산안법에 대한 새로운 강의 방식을 도입한 점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던 소모임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 함께 조직하고자 했던 충남, 경기남부 지역을 조직하지 못한 점이 미흡했던 점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제도 기획강좌는 1월 10일-11일을 예정으로 현재 실무 진행중이다.

대전, 충북지역 기획강좌를 통해 우리는 현장 노동보건운동 역량 확대·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첫발걸음을 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획강좌를 통해 지역의 신임 노동안전보건현장활동가에게 연구소와 충노건협의 존재와 활동내용을 알리고, 이후 공동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유지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지역 기획강좌는 우리에게 후속 사업 및 소모임 운영의 필요성과 타지역 기획강좌의 필요성 등 수많은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기획강좌와 함께 계획했었던 소모임의 경우, 운영 초기에 안정화 될 때까지 이를 운영할 내부 주체가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남 기획강좌의 후속사업의 하나로 소모임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주체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기획강좌의 경우 소모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실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교육자료정리와 교육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연구소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소 월례 세미나가 1월 9일 첫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다.

창립 당시 주요과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두원정공요양자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 사업장 요양자 대상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교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현재 애초 제시된 주요과제와 새롭게 제기된 주요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충남,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기획강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교육위원회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가 '현장의 운동주체를 새롭게 발굴·양성하고 운동 역량을 확대·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주체의 역량부족 등을 이유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 총평

교육위원회는 창립당시 제출된 당면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인 운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일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교육실의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창립당시 제출된 당면 주요과제는 연구소 교육위원회의 전체적인 활동 목표와 중장기적 활동과제를 기반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제 역으로 우리의 지금까지의 활동들이 중장기적 활동과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전체적인 활동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였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풍부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 2004년 교육위원회 활동과제

### 목표

2004년 교육위원회는 우선 운영의 안정화와 체계의 확립이라는 내부적인 활동 목표와 함께 2003년 후반기에 진행되었던 기획강좌, 강의평가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현재 경기남부에 위치한 로템 노동조합이 연구소와 근골격계 사업을 준비중이고, 뉴코아 노동조합이 중장기적으로 현장노동보건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 로템과 뉴코아를 포함하여 경기남부 지역의 현장과 일상적으로 진행될 교육사업을 통해 경기남부 지역의 노동보건운동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뉴코아 노동조합의 노동보건현장활동을 적극 지지, 지원하여 현재 제조업 중심의 노동보건활동의 내용을 비제조업 영역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 과제

연구소 창립시 제출되었던 교육위원회의 중장기적 활동과제를 바탕으로 2004년 교육위원회의 활동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체계 구축

- ① 월1회 교육위원회/교육실 회의의 안정적인 운영
- ② 일상적인 소통의 강화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의 강화

#### 2) 일상 교육사업 진행

- ① 두원정공 요양자 교육
- ② 로템 근골격계 교육
- ③ 뉴코아 노동보건활동 교육

### 3) 연구소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 ① 기획강좌의 지속적인 개최 : 퀘도(1월), 금속 충남(2월), 경기남부(3월)
- ② 지역별, 업종별 2차 기획강좌 조직 및 소모임 시범 운영
- ③ 학생 (후원)회원 조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 교육내용의 재생산, 연구소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① 월1회 월례세미나 정례화

### 5) 교육역량 확대 강화 프로그램 운영

- ① 연기위에서 준비중인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② 지속적인 강의 평가 및 강의 평가회 진행

### 6) 교육자재 개발

- ① 내부교육자료 정리 완료
- ② 외부 교육자료 정리
- ③ 업종별 유해요인 소책자 발간

## 2004년 상반기 시기별 교육위원회 활동 계획

### 일상 시기

- 월1회 교육위원회/교육실 회의의 안정적인 운영
- 일상적인 소통의 강화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의 강화
- 일상적인 교육사업 진행
- 월1회 월례세미나 정례화
- 지속적인 강의 평가

### 연구기획실 상근 충원 계획

; 연구기획실은 실제적인 투쟁 및 전술기획을 위한 조직(투쟁)과제와 현장 조직 및 운동의 확장을 위한 투쟁(조직)과제, 현장 연구원의 참여를 통한 연구과제를 수행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상근인력을 충원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장 조직 및 투쟁사업기획 : 연구조사 및 투쟁사업을 연맹, 노조 및 현장 활동가에게 제안하

## 고 현장 조직화

- 현장사업 이후의 후속작업 진행 : 지속적인 연대 활동 및 조직 활동
- 지속적 연구과제 수행 : 복귀실태조사연구(재해 노동자들의 요양 이후 복귀실태와 재활) 등
- 실천적 연구조사사업을 통한 현장 확장 및 일상적 현장활동가 조직
- 현장참여연구에 대한 실천적 방안 마련 : 각 사업장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단사별 대안 마련 및 참여연구

## 1월

두원정공 요양자 교육  
로템 확산 근골격계 교육  
케도 기획강좌 및 소모임 시범 운영  
내부교육자료 정리 완료

## 2월

두원정공 요양자 교육  
로템 확산 근골격계 교육  
대전, 충북 2차 기획강좌 및 소모임 운영  
금속 충남 기획강좌

## 3월

로템 조합원 근골격계 교육  
경기남부 기획강좌  
외부 교육자료 정리 완료

## 4월

## 5월

## 6월

강의 평가회  
업종별 유해 요인 소책자 발간

# 2003년 편집위원회 평가

# 1. 편집위원회

## 현장편집위원의 중요성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현장편집위원의 조직이었다. 현장편집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획을 하고, <일터>를 현장 노동자에게 널리 보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실제로 현장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결합하면서 <일터>의 내용이 훨씬 현장에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졌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또한 현장 편집위원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문제되는 내용들을 일터의 기획으로 채워나감과 동시에 <일터>의 글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가 만드는' 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월간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장편집위원들이 자신의 사업장의, 혹은 지역의 현장노동자와 요양자들을 정기독자로 조직하면서 <일터>를 발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이 운영됨은 물론, 현장 선전매체로서의 <일터>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장편집위원들의 전국편집위원회 참석율이 초기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초기의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일인지, 아니면 애초 현장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주체들을 전국단위 회의에 매달 결합시킨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무리수였던 지는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이 중에는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편집위원회를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들도 있었고, 역시나 불가피한 단위사정으로 참석치 못했던 위원들도 존재했다. 회의 결합도 문제지만 일상적인 소통이 힘들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한달 한번의 편집위원회만으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점검까지 함께 공유할 수 없다.

게시판, 메일 등 다양한 통로로 편집위원들이 기사를 읽고 평가하고, 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토론을 제기하는 풍토를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물론 모두가 인터넷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편집위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소통한다면 그렇지 못한 편집위원들에게는 전화 등으로 그 소통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편집위원회를 편집기획위원, 현장통신원으로 구분, 재정립하는 체계 재정비도 필요하다. 매달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전월호를 평가하고 다음호를 기획하는 편집기획위원과 각 지역에서 현장소식을 전달하고 지역의 독자를 조직하는 현장통신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 편집위원의 역할

초기 편집위원들의 역할은 기획, 집필, 취재, 조직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실제로 편집위원들은 이 다양한 역할 중 각각 기획 혹은 집필, 혹은 조직에 더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면서 활동해왔다. 물론 편집위원회 시작단계이므로 모든 편집위원들이 <일터>의 제작과정에 함께 하면서 전체 상황을 보게 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편집위원들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또한 모두가 처음 접하게 되는 집필, 취재 등의 활동에 대한 교육 등을

전혀 배치하지 못하고 그 역할이 주어졌던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매달 편집위원회 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전월호 평가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평가지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회 내의 다양한 교육일정 배치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타 매체 제작팀 등의 외부강사 초빙, 글쓰기 훈련 등 다양한 교육일정과 함께 스스로 만든 <일터>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편집위원회 전체의 제작역량 또한 축적,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편집위원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편집위원회로서, 연구소의 한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사고 되지 못해왔다. 물론 <일터>의 내용이 바로 연구소의 활동내용이기도 하지만 매체에 채 담아내지 못하나 주요한 연구소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편집위원회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초기 매체 제작에 집중하면서 그 외 다른 사항에 대한 공유를 하기조차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연구소 활동보고 및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근래 들어 편집위원회 내에서 연구소 활동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까지 진전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것이 사전 공유될 때 연구소 편집위원회로서 <일터>를 안정화시킨 후 더 다양한 매체를 고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모든 회의시 연구소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편집위원 확대 및 운영

현장편집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편집위원들은 대부분이 금속, 대공장 사업장 소속이다. 따라서 <일터>의 기획자체가 금속, 대공장에 맞춰져왔다. 이를 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비정규직과 타업종 사업장을 다루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그 당면 사업장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획을 잡기는 어려웠다. 또한 <일터>의 독자를 조직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일터>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도 편집위원확대는 시급히 요청된다.

편집위원회는 크게 기획, 현장취재, 동향 및 건강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별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 기획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매호 기획 때만 잠시 기획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어도 그 분과에서는 담당 꼭지들에 대한 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편집부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뚜렷이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노동보건월간지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 일터의 초기 기획

노동운동 전체를 보더라도 현장 노동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월간지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보건운동 월간지를 기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초기기획 단계에서는 여러 운동단위의 매체와 함께 서점에서 접할 수 있는 대중잡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본따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터>의 형식 -페이지수, 쪽지 등-은 지금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완성된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보건을 다루지만, 동시에 현장투쟁을 담아내야 하기에 전체 정세와 밀접하게 간다는 것을 실제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잘못할 경우, 노동보건은 없는 월간지가 될 수도, 노동보건만 있는 월간지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현장의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이 활발하다면 그야말로 '전체 정세와 긴밀하게 가는 노동보건 월간지가 될 수 있지만, 현장의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일터>의 내용도 현장감과 역동성을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큰 단위의 투쟁만이 아닌 현장의 작은 투쟁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사실이다.

## 일터의 내용

<일터>의 쪽지는 크게 투쟁소식을 전하는 현장통신, 투쟁의 현장 / 노동보건운동의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적인 내용의 되돌아보기, 기획, 특집, 노동자건강상식, 연구소리포트, 그것이 알고싶다 / 현장노동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일터이야기, 노동자문화, photo현장, 만나고싶었습니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름대로 노동보건운동의 투쟁, 정보, 교육, 현장소식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배분한 쪽지들이지만 실제 기획, 취재단계에서는 쪽지간의 명확한 분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다. 물론 쪽지들이 굳이 명확하게 다른 성격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논의할 필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 혹은 정형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측면일 수도 있다.

모든 쪽지가 고정불변의 것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 쪽지의 성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호 기획을 그 쪽지의 성격에 맞게 면밀하게 하는 것도 동반되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쪽지가 <일터>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새로운 쪽지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항상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일터>가 발간되었을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표지였다. '사보 같다, 누가 힘들게 일하는데 웃고 있냐' 등등의 평가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이는 두루뭉실한 <일터>라는 잡지의 제목과 함께 '잡지의 정체성과 색깔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로 모아졌다. 맨 처음 표지의 기획을 잡을 때 편집위원회 내에서 공유된 것은 '다양한 현장에서 노동자의 일상을 담아낸다' 였다. 물론 투쟁하는 현장의 힘찬 모습을 담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일터>는 아직은 투쟁보다 힘든 노동이 더 일상인 현장노동자가 주요독자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정기구독자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현장에서 노동자의 일상은 언제나 같은 듯하면서도 매시기 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일은 더 힘들어지고, 대체적으로 생활해나가는 데 빠듯해지고 있다. <일터>의 표지는 이러한 모습을 담고자 한다. 그것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일 수도, 그 외중에 주고받는 농담으로 쓴웃음 짓는 모습일 수도, 겨우 숨들릴 수 있는 점심시간의 한가로움일 수도, 그리고 격렬한 투쟁일 수도 있다. 그런 모습

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담아내며 <일타>를 읽는 독자들이 우리 사업장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표지의 기획은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이다.

## 제작 역량

<일타>는 그 시작부터 각종 자료와 필진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연구소 내에서 글을 집필하는 데 능통한 회원들이 많았지만 대중월간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써본 필진은 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매달매달 원고를 마감하고 교정교열을 하는 과정에서 ‘글이 너무 어렵다, 너무 학술적이다’는 평가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취재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같은 주제, 같은 논조라도 취재형식의 글과, 투고식의 글은 전혀 다르게 와 닿을 수도 있다. 다양한 사실근거를 기반으로 한 취재 글은 잡지의 생동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팀을 구성하기 이전이라면 기존 필진들의 문체를 <일타>에 맞게 훈련시키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현장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편집위원 혹은 현장통신원을 조직하는 과정도 주요하게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취재팀이 구성된 이후에도 기획과 꼭지의 성격에 따라 취재보다는 당사자의 투고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제작역량을 확대, 구축하는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취재, 사진, 그림, 디자인 등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인력이 구축될 때 꾸준히 제작되는 <일타>의 제작도 안정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발전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실리고 있는 만화와 같이 편집위원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타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 제작 과정

<일타>의 제작 과정은 크게 해당호의 기획 및 평가 - 원고청탁 및 수합 - 원고, 디자인 교정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작업의 전반적인 진행에 따라 <일타>의 성격과 특징이 드러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해당호를 기획하고 전월호를 평가하는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노동하거나 혹은 활동하는 편집위원들의 시야와 역할이 <일타>의 ‘노동자가 만든’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타>의 초기호 기획은, 전국에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던 편집위원들의 노력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현장에서 집필이 가능한 내용이 기획되었다. 하지만 개인적 사정이나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편집위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이와 비례하여 잡지의 기획이나 원고의 성격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애초 잡지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평가와 기획을 위하여 제안된 ‘분과체계’가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여, 원고 하나마다의 평가가 진행되기보다는 뭉뚱그려진 평가(쉬워졌다, 읽기 편하다 등)가 주를 이루었고, 분과별 기획 역시 서울편집위원의 제안이 그대로 꼭지 기획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안착화되지 않은 편집위원의 구성과 모임으로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해 편집위원의 열의와 역량에 따라 잡지가 보다 성숙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겠다. 분과별 체계의 원활한 소통과, 현

장편집위원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잡지의 일상적 평가와 기획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타>가 근골격계 투쟁을 중심 내용으로 하되 전국의 투쟁사업장을 지지하고 이들과의 연대와 사업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기획도 요청된다 하겠다.

기획단계 이후, 원고의 청탁과 수합을 각 쪽지의 담당자가 진행하고 편집실에서는 청탁 및 취재와 원고 작성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그간의 연구소 활동을 바탕으로 내·외부 필진에게 청탁을 넣어 글을 받는 형식이었고, 취재나 탐방 역시 그간 사업을 함께 진행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근골격계 투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쪽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청탁이 별 무리 없다 하겠으나, 장기투쟁 사업장이나 전국의 투쟁 사안을 내용으로 하는 쪽지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조직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부필진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 과정이, 단순한 원고의 요청만이 아니라 연구소와 <일타>의 핵심 내용과 성격을 알려내는 작업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청탁을 통한 독자와 연계사업장의 확장은, 현재 편집실과 함께 쪽지를 담당하고 청탁을 진행하는 현장편집위원의 노력으로 이미 그 모양을 갖추어나가고 있고, 앞으로 보다 확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교열과 디자인 교·수정 작업은 편집실에서 주관하고 있다. 원고의 1차 교정, 교열은 각 쪽지 담당자에게서 1차적으로 진행되고, 전체 원고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편집실이 다시 2차 교열 작업을 진행하여 기획사에 넘기게 된다. 교열작업은 쪽지를 담당하는 편집위원 내의 역할 배분으로 오타와 내용의 교·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수합이 늦어지거나 취재 일정에 급급하여, 편집실이 마지막 교열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명확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일타> 디자인의 경우, 편집실에 아직 편집디자인의 역량이 없어, 기획사에서 디자인한 시안을 편집실에서 받아 이를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일타>의 성격과 구성을 기획사와 공유하지 못하였고, 편집실이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기획사와의 호흡은 일정 정도 맞추어져가고 있다. 앞으로 편집디자인을 내부에서 소화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적어도 기획사와 전체 디자인을 조율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편집실 내부의 역량을 구축한다면, <일타>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 재정 및 정기독자 조직

<일타>에 대한 외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준비1호 발간 당시 몇몇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몇 차례의 인터넷 게시판 선전 외에는 거의 없었다. 물론 정기독자 조직을 위해 초기 3회에 걸쳐 2천부를 전국의 주소수합이 가능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에 무료배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무료배포 이후에 정기독자를 조직하기 위한 사후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곧장 정기독자 조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매체임에도 <일타>에 실린 기사를 요청하는 단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일타>가 실고 있는 내용을 필요로 하는 단위가 분명 있고, 노동보건의 투쟁의 내용을 알리는데 <일타>가 일정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실물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외화, 선전작업, 그리고 적극적인 독자조직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다. <일타>의 재정은 연구소 재정과 독립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입구조로 생각할 수 있는 광고는 받지 않기로 초기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일타>의 수입은 오로지 정기독자의 구독료이다. <일타>를 매달 안정적으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이후 매달 160만원(1년 정기구독 53부)의 수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연구소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취재 및 기타발송비용까지 <일타>의 재정에서 책임지려면 최소한 20만원 가량의 추가지출이 요구되어진다. (180만원, 1년 정기구독 60부) 준비1,2호까지는 정기독자를 조직하면서 제시기에 제작비가 지급되었으나 준비3호부터 현재까지 정기독자 조직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제작비 지급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편집위원, 정기독자 조직에 따른 논의 및 결의는 매회 편집기획회의와 편집회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굳이 회의자리에서 공지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독자조직에 매진하는 편집위원과 연구소 회원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편집위원회 2004년 사업계획

### 1. 조직 운영

(1) 체계 정비 : 현 편집위원회 체계를 편집기획위원/현장통신원으로 분리 운영

① 편집기획위원

- 매달 1회 전국편집위원회 참석
- 전호 <일타> 평가 및 다음호 기획
- <일타> 꼭지별 담당 및 취재
- <일타> 제작 전반 책임

② 현장통신원

- 지역별 (서울경기강원/부경/대전충청/호남) 정기독자 및 현장통신원 조직
- 분기별 1회 지역별 독자모임 운영

③ 편집실

- <일타> 제작 및 발송, 재정 등

④ 부문별 담당

- 그림, 사진, 편집디자인 등 매체제작에 필요한 외부활동가를 고정 배치

## (2) 편집위원회 운영 안착화

- 편집위원, 현장통신원간의 활발한 소통 정착 : 지역별 정기모임 진행
- 편집위원회와 편집기획회의 결과 공유 및 일상 업무 진행사항 공유
- 각 분과 내 소통 활성화
- 교육 및 정세토론 : 편집기획위원 매달 1회, 전체편집위원 분기별배치
- 전체 편집위원 수련회 개최 ( 연 1회)

## (3) 편집위원회 확대

- 서울경기강원 / 부경 / 대전충청 / 호남 지역별 담당편집위원 구축
- 여성, 비정규직, 화학섬유, 서비스, 공공, 사무금융, 보건의료 등 업종부문별 편집위원 조직

# 2. 정기독자 관리 및 확대

## (1) 기존 독자 관리

- 지역별 독자 모임 운영 : 3개월에 1번씩, <일터> 후기란을 통해 외화
- 독자 단체 메일 구축 : 연구소 행사 안내, <일터> 안내 등

## (2) 독자 의견수렴 체계 구축

- 독자 설문 진행 : 6개월에 1회씩 지역별로 진행
- 홈페이지내 '일터에 바란다' 게시판 운영

## (3) 정기 독자 확보

- 매달 현장중심으로 60명 정기독자 조직
- 2004.8월경 정기독자 850명 목표(2003.12.5 현재 249명 301부 구독)

## (4) 선전

- 타매체 광고 및 인터넷 선전
- 대자보, 참세상방송국, 각 단위 사업장 홈페이지 등 <일터>기사 게재를 통한 선전
- 장기투쟁사업장 배포 및 투쟁사업장 일일주점 등 각종행사시 선전 및 배포
- 홈페이지 <일터> 업데이트 및 선전

# 3. 매체 제작 역량 구축

## (1) 내부 제작역량 강화

- 편집디자인, 사진촬영 등 내부 담당인자 육성
- 사진, 그림, 문서, 타매체 등 관련자료 정리
- 타매체 검토 및 비교평가
- 상시적인 글쓰기 훈련 : 홈페이지내 노동보건소식 업데이트

## (2) 매체 제작 관련 조직화 구축

- 취재처 관리 및 지속적인 연대
-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매체 활동가 네트워크 조직

## 4. 편집실 상근 충원 계획

; 편집실은 연구소의 매체인 월간지 <일타>를 제작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편집위원과 현장 통신원을 조직하고, 연구소의 선전매체 제작 및 배포를 위한 기획 및 실무, 조직화를 담당할 상근 인력을 충원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월간지 <일타> 제작 : 매달 <일타>를 기획하고 제작 전반
- 편집위원회 운영 및 조직 : 현장편집위원 조직, 교육, 정기모임 등 편집위원회 운영
- 매체 제작 역량 구축 : 내부 제작 역량 구축 및 매체 활동가 네트워크 조직

## 5. 기타

- <일타> 제작 안정화 구축 이후 단행본 등 다양한 매체 고민
- 2004.8.9월경 만화소책자 제작 고민 : 업종별 유해요인 안내 소책자(교육실 사업과 연동)

## 교대제 현장세미나

교대제 현장세미나는 현장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강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미나입니다. 전반적인 목적은 노동과정, 노동조건, 비정규직, 교대제, 노동시간 등 사회환경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전체 노동운동과의 관련성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과정속에서 노동강도 및 노동시간과 교대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불건강의 문제를 이해하고, 전체 노동운동의 전망속에서 노동자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 둘째, 작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단결력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셋째, 현장에서 노동자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 필요한 근거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세미나 내용

- (1)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조사결과들을 중심으로
- (2) 교대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외국사례들을 중심으로
- (3) 교대제와 노동시간 - 자본가의 정책들의 본질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4) 교대제와 노동시간 - 노동자의 대안은 무엇인가?
- (5) 교대제의 대안마련 - 대안마련의 원칙은?
- (6) 교대제의 대안마련 - 유럽의 사례들과 문제점
- (7) 교대제와 노동시간에 대한 대안마련 - 구체적인 현장사례들을 풀어나가기

### 2. 세미나 참가 대상

노동강도, 노동시간, 교대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현장에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현장활동가, 단체활동가, 그 외 노동보건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3. 세미나 일정

세미나는 매월 1회 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대제 현장 세미나에 참여하실 동지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2679-0633)

■교대제 세미나 1차 모임: 2004년 2월 6일(금) '교대제와 노동자건강' 월레포럼

## 2004, 노동안전보건 전망 토론회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을 말한다.

- 현장 통제력 쟁취와 노동자의 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해 근골격계 투쟁의 평가와 한계속에서 2004년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동강도 강화 및 불안정 노동의 확산, 교대제의 확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노동현장의 상황속에서 노동과 자본간의 대립과 전선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노동조건, 고용조건 등 2004년 정세판단을 통한 투쟁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004년 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6시
- 장 소 : 민주노총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 (042-621-2462)
- 일 정 : (1) 노동강도 강화의 흐름과 투쟁 평가  
(2) 2004년 정세 전망  
(3) 2004년 투쟁계획 제출 및 토론
- 찾아오시는 길 :



\* 대전역에서 300번, 700번 소도시간 35분, 대전물계이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0분 소요

- 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1가 132-2 2층
- 전화: 서울) 02-2679-0633/ 부산) 051-816-8634
- 팩스: 02-2679-8208
- 홈페이지: [www.kilsh.or.kr](http://www.kilsh.or.kr)